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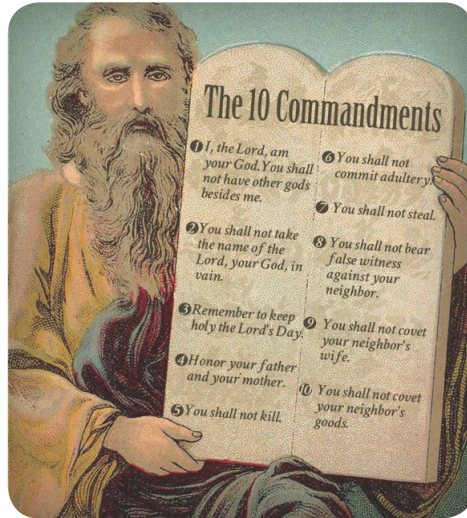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명회: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십계명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법규들은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자연스러운 법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자연법을 그 원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에 어긋난 것은 모두 죄입니다.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느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도 신앙인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느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키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 하느님 자녀로서의 품위를 드러내기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계명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



느님 자녀로서 품위를 누리게 하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인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기에 늘 겸손의 삶을 유지합니다. 어느 누가 있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에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비 하심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탈출20,6)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마태5,19)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삶은 구원에 이르는 삶이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이도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계명은 생명을 줍니다. 계명은 사랑을 살아가게 합니다.

계명은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어머니의 눈앞인 것처럼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은 하느님의 눈앞입니다. 그러므로 계명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은 분명하게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월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화/수/목/금 오후 7:30

성사 안내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교육 (주일) 오전 8:20

학교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1,35-37)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마르15,37-39)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은 누구십니까?”하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드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일을 “강생” 또는 “육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생구속(降生救贖)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니체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나이다.”

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강생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요한1,14-15)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에 의해 쫓겨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외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인대장의 입에서 고백됩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서 “메시아” 또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1,36)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습니다. 안드레아는 자기 형 시몬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요한1,41) 하고 말하였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 사제, 왕들이 즉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 중의 예언자이시고, 대사제 중의 대사제이시며, 왕 중 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신 ‘구세주’(救世主)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마태16,13) 하

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마태16,14)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공통된 생각은 ‘특별하신 분’ 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라는 신앙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당시 군중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메시아로써, 힘으로 로마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실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일을 하려고 했고,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마태26,42)

이런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지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힘을 내라고 모범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느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다른 칭호는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구원자”, “사람의 아들” 등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칭호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시어 다시 하느님께로 귀환하는 분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칭호로써 표현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39)

하느님의 어린양은 예언자들이 예고한 하느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는 존재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죄의 노예살이에서 끄집어내어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려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 몸소 인간이 되셨고, 당신 몸을 희

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도하고자 할 때 자신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을 사제에게 가져갔습니다. 대부분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대개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제는 양을 제단으로 끌고 가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 양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양을 봉헌한 이들은 그 양을 바라보며, “주님, 이 양을 저와 같이 여기소서.”하며 기도하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양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지셨고, 지극한 피로움에 짓눌리셨으며, 마침내 아버지의 손에 맡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단 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높이 들어 올려진 우리의 새로운 어린양이십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1,29)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체 직전에 사제가 성체를 쪼갤 때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화를 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모든 이가 같은 빵을 나누어 먹는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하나가 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이 세상에 강생하셨고, 당신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양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시어 당신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신 분은 “요셉”성인이시고, 다른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이었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위로하고, 다시금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태오 복음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심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1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야곱

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마태1,1-16)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자비를 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예리코의 소경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며 자비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라는 호칭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다윗의 자손이 나타났다고 하면 즉각 군대가 출동하여 토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안”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 위에 하느님의 자비와 다스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다스릴 대상이 야곱의 피를 받은 자손 뿐 아니라, 히브리인, 이방인을 불문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맺어진 교회, 나아가 온 인류를 말하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공동체 소식

11월 위령성월 안내

• 11월은 위령성월로 죽은 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특별히 묵주기도를 바치실 때 “연옥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기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도 저녁기도를 바치실 때 “위령성월 기도”를 꼭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기도 지향

- ① 내가 기억하는 모든 연령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기를 청하며
- ② 대부모들을 위하여
- ③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나 자신을 위하여

2019 매일 미사 책 신청

• 2019년도 매일 미사 책 미리 신청받습니다
문의 : 성물방

11월 성경아카데미 안내

성경 아카데미 “11월 성경강좌”
24일(토): 필리피서, 10시 미사 부터
필리피서로 구역모임을 하시는 구역에서는 말씀 봉사자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스트림 방송 보기

스마트폰 QR Code Reader로
스캔하십시오.

livestream.com/standrewkim

